

DELPHI

VERITAS VINCIT OMNIA

Friend or Enemy

앞으로 AI와 함께 공존하는 삶은 과연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AI에 대한
생각들

AI and Human

이제 눈 앞에 도래한 AI 시대, AI 시대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며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가져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

CONTENTS

03

신영서 Delphi Editor

생각하는 기계와 질문하는 인간

마침내 등장한 생각하는 기계
앞에서 인간은 더 이상 유일한
만물의 척도가 아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05

Blockchain
Valley

Friend or Enemy?

이제 눈 앞으로 다가온 AI와
의 공존 시대. 과연 AI는
세상을 풍요롭게 바꿔줄
인간의 친구일까 아니면 실
업과 고립으로 이끌 인간의
적일까

07

안수빈

Hashed

외부 필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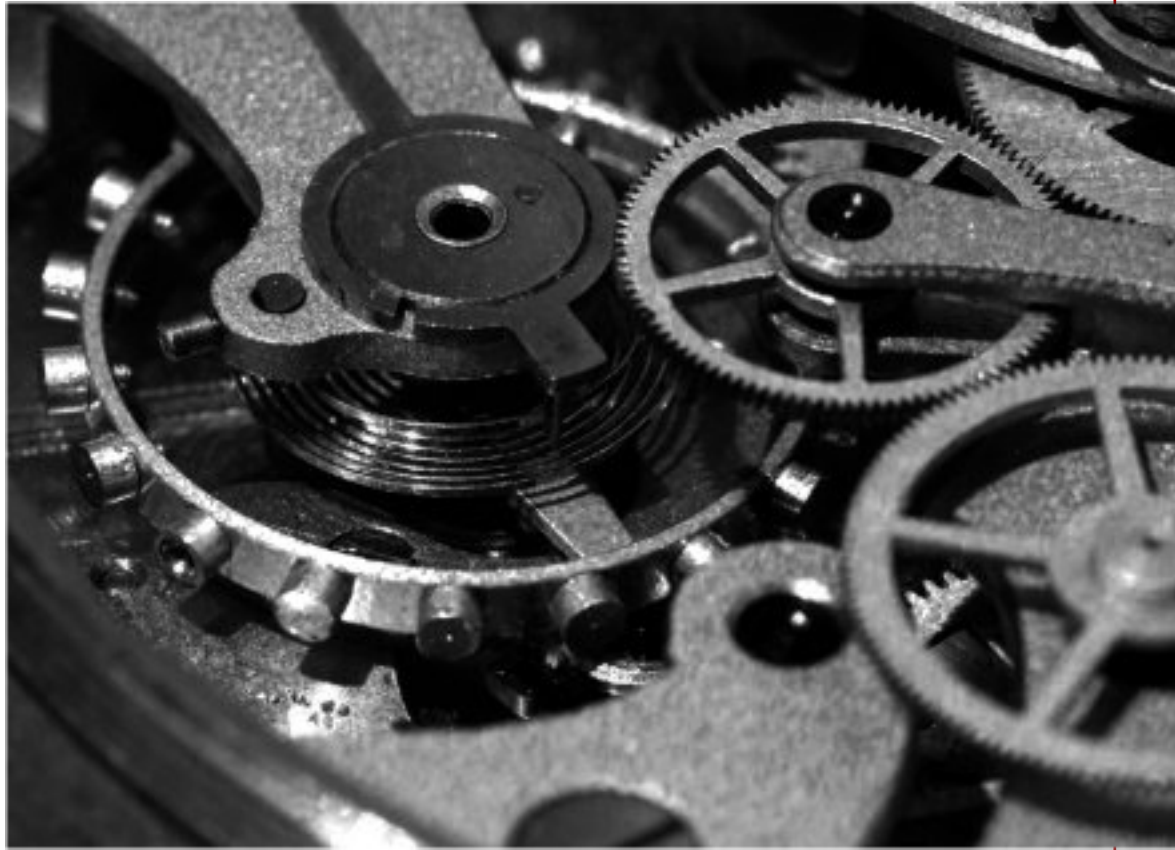
지식과 기술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는 AI
시대, 인간이 가져야 할
새로운 역량을 탐구한다

08

Contributor

질문들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는 던
져야 하는 질문에 대한 각
필진들의 대답



“산업화 시대에서 질문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중요한 것은 오직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천재 수학자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숨은 영웅, 앨런 튜링은 난공불락의 암호 애니그마를 해독해낸 주역이었다. 그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작동 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확신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그는 애니그마라는 난제를 자신의 두뇌 대신,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기계인 콜로서스를 창조했다.

그의 사후 70년이 흐른 지금, 기계가 해결하는 문제는 애니그마 하나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한때 인간만의 특권이라 여겨지던 추론 능력은 이제 AI가 대부분의 인간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만물의 척도로서의 인간이라는 기존의 관념이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인간만이 유일한 사고의 주체가 아닌 이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여기서 잠시 시야를 넓혀보자. 앨런 튜링의 고국인 영국과 대비되는 프랑스에는 *problématique*라는 독특한 개념이 존재한다. 이는 ‘문제’를 뜻하는 프랑스어 *problème*의 복수형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단순히 여러 문제를 나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Problématique*는 하나의 주제를 둘러싼 문제군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떤 논리적 경로를 통해 접근할 것인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더 나아가 사유가 전개되는 방식 그 자체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Problématique*는 개별 문제의 집합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확장해 나가는 사고의 틀을 의미한다.

영국식 학문적 글쓰기가 주어진 문제를 서론-본론-결론의 틀에 맞춰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프랑스식 글쓰기는 주어진 문제를 뒤집고 분해하여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지닌 새로운 문제 자체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 덕분에 영국은 경험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공학과 과학이 발달한 반면, 프랑스는 수학이나 철학 같은 추상적 사유 분야에서 탁월한 강점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질문을 하는 사고, Problématique는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 여태까지는 정답을 내는 것이 질문을 하는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품을 훨씬 더 잘 만드는 것이었다. 즉, 질문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중요한 것은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모든 인간의 지혜를 합친 듯한 궁극의 콜로서스가 등장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중세 철학의 정점이자 완결로 여겨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에는 모든 진리가 성경 위에 있었고, 그 외의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진리를 해석한 그의 저서 《신학대전》의 등장과 함께 철학이 끝났다고 여겨진 바로 그 순간,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는 답변이 아닌 질문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변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문을 던진 것이다. 현대의 성경이자 궁극의 콜로서스가 등장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새 시대의 지평을 열어 줄 새로운 질문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새 시대의 지평을 열어 줄 새로운 질문을 창조하는 것이다.”



01 Ray

AI는 창의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조합형 창의성” 영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다. 디자인, 염기서열 설계, 코드 작성, 과학 가설 생성 등 기존 아이디어를 빠르게 섞고 변형하는 모든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AI는 인간보다 수백만 배 빠른 속도로 이 거대한 탐색 공간을 훑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 창의적 작업은 대부분 AI에 의해 자동화되고, 인간은 AI가 제시한 무수한 옵션 중 선택하고 미세 조정하는 역할로 이동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꾼 변혁적 창의성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추상화와 기존의 틀을 깨는 통찰은 여전히 AI가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AI는 인간을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조수”로서 세상을 극적으로 풍요롭고 빠르게 만들겠지만, 인류의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은 여전히 인간의 독창적 통찰(혹은 인간과 AI의 협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I는 세상을 혁신적으로 가속시키되, 완전히 재창조하지는 못할 것이다.



Friend Or Enemy?

AI는 놀라운 속도로 디지털 병목을 허물고 있다. AI의 엄청난 속도의 번역을 통해 언어의 해자가 소멸했고, 방대한 데이터 탐색과 분석 능력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학문의 해자를 무너뜨렸다. 수많은 암기가 필요했던 전문 지식의 장벽 또한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병목은 여전히 견고하다. 전력, 자원, 생산,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AI가 아직 혁신하지 못한 물리적 영역은 과거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AI가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리적 토대의 비약적인 발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세상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02 Twi

AI는 효율과 편의를 앞세워 사회 전반을 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개인의 행동, 취향은 데이터로 수집되어 예측되고, 알고리즘은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선택지를 배열한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느끼지만, 그 결정은 이미 설계된 확률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판옵티콘은 강제하지 않는다. 대신 추천과 최적화를 통해 자발적 복종을 만든다. 점수화된 사회에서 불투명한 알고리즘은 기회를 배분하고 배제를 정당화하며, 설명 없는 판단은 저항의 여지를 지운다. 자유는 사라지지 않지만,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만 허용된다.

결국 AI 판옵티콘의 위험은 통제가 아니라 상상력의 위축이다. 모든 것이 측정되고 관리될 때, 체제를 벗어나는 사유와 창발성은 노이즈로 제거된다. 우리는 더 효율적인 사회를 얻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다.

03

Money Monkey



Friend Or Enemy?

04

errkat

AI가 사회에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직접 결정을 대신하기보다,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함으로써 판단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재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책임 체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에서 핵심 쟁점은 AI가 관여한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당화되며, 어느 지점까지 인간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는가에 있다.

이처럼 책임의 귀속이 불분명해질수록, 사회가 요구하는 신뢰의 조건 역시 달라진다. 신뢰는 더 이상 판단의 정확도나 처리 효율에서만 발생하지 않으며, 의사결정의 과정이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오류 발생 시 책임을 되돌려 물을 수 있는 구조 위에서 형성된다. 결국 AI 시대의 안정성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책임을 귀속시키고 판단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AI는 사회를 바꾸는 기술이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검증 가능한 판단 구조를 선택하는 인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

지능의 평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권력



안수빈 HASHED

"지능의 밀도가 상향 평준화된 세상에서 지식의 양 자체가 권력이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오랫동안 개인의 생산 가치는 그가 쌓아온 지식과 기술의 숙련도라는 해자에 의해 보호 받아 왔다. 전문성은 생산성을 담보하는 무기였고, 그 기술적 해자는 타인이 쉽게 넘지 못하는 진입장벽이었다. 무엇을 할 줄 아는가가 곧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지식과 기술의 가치는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 과거 전문가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해법들이 이제는 단 몇 초의 연산이면 출력되는 공공재가 되었다.

여전히 GPU 수급이나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 고갈 같은 물리적 병목이 발목을 잡고 있고, AI가 AI를 학습하는 특이점이 정말 올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류가 그 병목을 해결하는 정답을 찾아가는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하드웨어와의 결합이 본격화되는 순간 물리적 생산 영역에서도 파괴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능은 더 이상 희소 자원이 아니다.

결과물을 해석하고 검증하는 펀더멘탈로서의 지식은 여전히 기초 체력처럼 중요하겠지만, 지능의 밀도가 상향 평준화된 세상에서 지식의 양 자체가 권력이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개인의 지식 만으로는 더 이상 어떤 우위도 점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식이 흔해진 무한 생산의 시대에 인간의 역량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AI가 내놓는 매끈한 결과물의 본질을 꿰뚫는 메타인지다.

AI는 데이터의 평균값에 수렴하는 '그럴 듯한 정답'을 내놓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학습 데이터가 가진 편향과 한계가 숨어있다. 기계가 제시하는 평균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의 맥락을 읽어 내며, 기계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우리만의 방향'을 정의하는 힘. 이것이 기술 과잉 시대에 인간이 중심을 잡기 위한 첫 번째 분별력 이다.

이렇게 정립된 고유한 의도는 관심과 설득이라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실질적인 가치로 치환된다. 정보가 넘쳐날수록 인간의 시선은 가장 구하기 어려운 자본이 된다. 메타인지로 걸러낸 독창적인 색깔로 그 찰나의 시선을 붙잡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도나 기술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 없다.

시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생존의 기술이라면, 그 멈춰진 시선을 신뢰로 바꾸어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설득의 기술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교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실재감이다.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투박하고 생생한 결에서 나온다.



**"지능의 높이가
평준화될수록,
마침표를 찍는
이 책임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권위와 가치가
된다"**



마지막으로, 확보된 관심을 실제 가치로 종결짓는 힘은 맥락적 판단과에서 나온다. AI는 수만 가지의 선택지를 제안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앞에 놓인 '이 시점'의 구체적인 문제에 어떤 대안이 최적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맥락적 판단이란 파편화된 기술적 결과물들을 현실의 복잡한 이해관계, 시대적 결핍,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실 한 올에 꿰어 하나의 완성된 가치로 엮어내는 설계 역량이다.

여기에 더해, 불확실한 선택의 리스크를 자기 이름으로 짊어지는 책임의 무게감은 기계가 범접할 수 없는 최종 결정권자의 영토다. 지능의 높이가 평준화될수록, 마침표를 찍는 이 책임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권위와 가치가 된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지식과 기술이라는 장벽 앞에서 분투해 왔다. 이제 그 장벽은 무너졌고 기술적 숙련도가 가치를 독점하던 시대도 끝났다. 이제 실행의 제약은 사라졌고, 도구를 든 인간의 의중만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한다. 할 수 없어서 못 했던 시대가 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소망하는가. 지능이 공공재가 된 시대, 이제 당신이 증명해야 할 것은 당신이 품은 의도 그 자체뿐이다.

Dialouge

질문, 혹은 대화들

Q : AI로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라 예상하는가?

Ray

AI로 인해 정보가 무수히 쏟아지고 한 명의 인간이 평생에 걸쳐 보던 양의 아이디어를 일주일 혹은 하루 만에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보와 아이디어가 쌓인다면 사회 전체의 변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이다.

Twii

현재 AI는 대중의 공포와 열광이 뒤섞인 거대한 환상을 자극하고 있으나, 정작 그 관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캐시플로우는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10년은 두 축 사이의 간극이 어느 한쪽으로 무너질 때까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그 어딘가에 서 불안한 항해를 지속할 것이다.

MoneyMonkey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확장해왔고, 이제 그 속도와 범위가 압도적으로 커졌을 뿐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바뀔 것인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무엇이 바뀌지 않을 것인가”다.

errkat

AI의 확산으로 지식에 대한 접근은 크게 쉬워지지만, 정보의 양이 곧 이해나 판단의 수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회는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능력보다, 넘쳐나는 지식 속에서 의미를 구분하고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역량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Q :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될까?

Ray

AI 시대에선 역설적으로 병목은 다시 인간 쪽으로 옮겨진다. 인간이 이러한 수만 개의 데이터를 제대로 검증하고 그 중에 진짜 보물을 골라내는 속도는 한계가 있기에 이 방대한 데이터를 소화하며 오류를 찾고 창의적으로 변주하는 역량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다.

Twii

AI는 뛰어난 전문가들이 몇 일에 걸릴 일들을 하루만에 끝내며,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이제 중요한 능력은 주어진 업무를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해 나갈 끈기가 중요해진다.

MoneyMonkey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정답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정답의 규칙을 깨는 능력일 것이다. AI 시대는 이미 답이 세상에 만연한 시대다. 진짜 경쟁력이란 정석을 따르는 능력이 아니라, 정석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완전한 변칙성, 그리고 AI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는 인간만의 불확실성과 창의성일지도 모른다.

errkat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과잉 정보 환경 속에서 의미를 선별하고 판단 기준을 구조화하는 능력이다. AI 시대의 핵심 역량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화된 판단 기준 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있다.